

국내 의학학술지 참고문헌 기술규정의 상이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a Descriptive Regulations for Reference of Korean Medical Journals

김 흥 렬(Hong-Ryul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참고문헌 기술규정 분석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 2. 연구의 대상 | 2. 일반사항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3. 참고문헌 기술항목 분석 |
| 1. 의학학술지의 투고 규정 | IV. 결과 및 제언 |
| 2. 선행연구 | |

초 록

최근에 들어와서 참고문헌이 정보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술지에서 제시하는 참고문헌의 기술규정이 서로 다르고, 연구자들마다 참고문헌의 기술규정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한 채로 참고문헌을 다양한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고문헌 기술규정의 상이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서지기술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참고문헌 기술규정 통일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참고문헌, 기술규정, 상이성,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ABSTRACT

Today, the value of the references comes to be high and the reference database construction is increasing. But, the descriptive regulations of the reference which it presents from scholarly journals different with each other. Also, the researchers probably does not recognize a descriptive regulations of reference. It is likely that the effective construction of reference database is very difficult.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of a descriptive regulations for reference and presents the plan for standardization of a descriptive regulations.

Key Words: Reference, Reference Database, Difference, Descriptive Regulation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hykim505@jj.ac.kr)

• 접수일: 2005년 5월 18일 • 최초심사일: 2005년 5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5월 30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대개 연구자가 새로운 학술적인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자 할 때는 이전에 수행된 수많은 관련 선행연구에서 학술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이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정보의 생산에 활용된 근거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국내외 공식적인 정보원을 통해서 발표할 때 논문의 말미에 참고문헌으로 기재되고 있다. 참고문헌은 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른 연구결과를 인용한 바를 밝힌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자신이 수행할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유사한 연구 결과에 사용된 참고문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논문에 수록되어 있는 참고문헌은 연구자가 관련 문헌을 일일이 찾는 수고를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는 참고문헌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업무에는 아직까지도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근래에 들어오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KCI(Korean Citation Index),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KSCI(Korean Science Citation Index), 한국의학회의 KoMCI(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등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원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인용빈도 계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술지의 평가나 연구자들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가치가 증시되어 이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업무에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참고문헌데이터베이스나 인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국내의 연구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활용함과 동시에 연구자들에게 국내 학술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 정보원을 제공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

이들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표준화된 기술규정을 적용하여 완전하게 기재된 참고문헌이 존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정한 기술요소와 기술형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문헌은 참조 정보원으로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각 학문분야는 일정한 참고문헌 수록양식을 게재하여 해당 학문의 완전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지식이 계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²⁾

하지만, 연구자들은 각 학술지에서 제시하는 참고문헌의 기술규정을 완전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연구자들마다 참고문헌의 기재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각 학술지마다 참고

1) 최광남, "국내 학술지 영향력 지표분석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KSCI)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4, 12), pp.271-289.

2) 김홍렬, "인터넷 기반 전자정보원의 참고서지 기술요소와 형식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3호(2002, 9), pp.87-108.

문헌의 기술규정이 달라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참고문헌 DB나 인용색인DB를 구축할 때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지의 참고문헌 기술규정을 분석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현재 학술지 투고규정의 일부분으로 기술되어 있는 참고문헌 기술규정의 상이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서지기술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참고문헌 기술규정의 통일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참고문헌 기술규정의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다소 수행되었으나, 이들 연구들은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참고문헌 서지기술의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기술되어야 하는 필드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필드에 정확한 서지적인 기술을 수행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학술지 투고규정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의학분야 학술지를 선정하여 그들의 참고문헌 기술규정을 분석하였다. 의학 분야 학술지는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분야를 선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의학 분야 학술지는 그 투고규정이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명확하게 지시되어 있는 편이다. 대개 의학 분야는 Vancouver 형식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ICMJE)]³⁾을 원고투고를 위한 표준으로 또한 참고문헌 기술을 위한 표준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학술지 생산에 직접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의학편집인협회나 우리나라 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에서 잡지나 논문의 생산시 이 Vancouver 형식을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각자 나름대로 정해진 다른 학회 규정을 사용하거나, Vancouver 형식을 따른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의학 학술지들이 아직도 상당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학학술지의 참고문헌 기술규정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Vancouver 형식을 살펴보고, 국내 의학 학술지의 참고문헌 기술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의학학술지가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통일화 방안을 제시하여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표준 데이터 요소를 설정하고 데이터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http://www.icmje.org>) [cited 2005-04-10].

II. 이론적 배경

1. 의학 학술지의 투고규정

의학 학술지의 투고규정으로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으로 불리우는 Vancouver 형식⁴⁾은 국제 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이 형식은 의학 분야 학술잡지 기사의 인용 및 참고문헌을 기재할 때 참고하기를 권장하는 표준양식이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참고문헌 기재 양식이다. 이것은 1978년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종합의학학술지 편집인 몇 사람이 비공식 모임을 갖고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가 갖추어야 할 형식과 지침을 만든데에 기초하고 있다. Vancouver 형식은 초기에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 개발한 참고문헌 형식을 참조하여 “통일 양식”을 작성하였고, 이를 1979년 출판한 것에서 시작한다. 이 출판그룹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로 발전하였으며 매년 모임을 가지면서 점차 그 관심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그 후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Vancouver style)을 개정5판까지 만들었다. 가장 최근에 출판된 것은 1997년에 출판한 제5판인데, 국제의학편집인위원회는 이 “양식”이 널리 보급되고 이용되기를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양식”을 사용하기로 동의한 학술지는 그 투고규정(Instruction to authors)에서 1997년도 제5판을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이 양식에는 저자들이 원고 투고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원고 투고시 요구되는 지침과 형식, 원고발송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별도의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 Vancouver 형식의 참고문헌 기술규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주 4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2. 선행연구

참고문헌 기술요소나 형식에 관한 표준화에 대한 관련 연구는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지속적으로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온 연구대상이었다. 그러나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 학술지의 참고문헌 투고규정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공유 및 공동이용을 위한 참고문헌 서지기술

4)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http://kms.kams.or.kr/file/uniform.hwp>> [cited 2005-03-23].

에 관한 표준화 연구의 일환으로 대부분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가운데서 국내에서 수행한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김태수 등은⁵⁾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데이터요소나 형식을 분석하여 각 자료의 유형별로 참고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을 제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유일의 데이터베이스 유통과 표준화 관련 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참고문헌에 관한 표준화 지침서의 기초연구이다. 또한 김태수, 남영광, 최석두 등⁶⁾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요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보관리학회지의 참고문헌을 대상으로 데이터요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등의 10가지 기본정보를 선정하였고, 이들 요소의 기술형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국내 학술지의 인용색인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수록 데이터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최광남 등의 연구⁷⁾가 있는데, 이 연구는 국내 연구자에게 분야별 필수적인 연구정보원의 제공과 기관별, 분야별 과학기술수준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한 한국인용색인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방안 및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요소는 위에서 설명한 김태수, 남영광, 최석두 등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선정하고 데이터요소 기술규정은 자체적으로 지침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박은자⁸⁾는 연구논문이나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미국심리학회(APA)양식과 미국언어학회(MLA)양식에 제시된 온라인 정보원의 인용 및 참고문헌 수록방법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또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정보원을 인용하고 이를 참고문헌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요람에 실린 학위논문작성요령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투고요령을 조사한 적이 있다. 한편 김홍렬⁹⁾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고 입수 가능한 전자정보원을 대상으로 참고문헌 작성기준에 관한 각종 스타일 매뉴얼들의 기술요소와 기재순서, 기술형식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연구자나 학협회, 출판사 등이 참고문헌을 작성하거나 작성지침을 제시할 때 포함할 수 있는 기술요소 및 형식을 제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참고문헌 데이터요소 및 서지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데이터요소의 설정과 기술에 관련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DB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요소를 설정하고 데이터 기술의 표준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

5) 김태수 등, 참고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에 관한 연구, 1998, <<http://www.dpc.or.kr>> [cited 2005-02-20].

6) 김태수, 남영광, 최석두,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을 위한 데이터요소의 기술형태 분석 : 정보관리학회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16권, 2호(1999, 6), pp.183-199.

7) 최광남, 조현양, 안세필,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의 효율성 및 서비스 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9권, 4호(2002, 12), pp.77-94.

8) 박은자, "온라인 자료의 인용 및 참고문헌 수록양식과 국내 대학 및 학술잡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용 및 참고문헌 수록양식 조사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6권, 2호(1999, 6), pp.81-104.

9) 김홍렬, "인터넷 기반 전자정보원의 참고서지 기술요소와 형식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3호(2002, 12), pp.87-108.

여 특정 분야 학술지의 참고문헌 기술규정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학술지의 참고문헌 기술규정을 분석하여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요소와 기술방법의 통일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Ⅲ. 참고문헌 기술규정 분석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의학편집인협회에 소속된 회원기관에서 출판되는 잡지 106종을 대상으로 참고문헌 투고규정을 분석하였다. 투고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이들 106종을 국내 의학분야 학술지의 인용문헌 및 인용관계 정보를 제공하는 KoreaMed에 등재되어 있는 잡지79종과 KoreaMed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27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KoreaMed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참고문헌 투고규정이 엄격하게 평가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렇지 못한 학술지보다 투고규정이 보다 명확하게 정돈되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의 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참고문헌 투고규정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으로 입수할 수 없는 잡지의 참고문헌 투고규정은 직접 해당 의학 잡지의 참고문헌 투고규정을 찾아 분석하였다.

〈표 1〉 참고문헌 투고규정 분석대상 의학저널

	KoreaMed	non-KoreaMed
의학저널수	79	27

2. 일반사항 분석

가. 의학분야 참고문헌 기재양식

국내 의학 학술지의 참고문헌 투고규정은 일반적으로 Vancouver 형식과 Harvard 형식을 주로 채택하여 표준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학편집인협회(이하 의편집)에서는 참고문헌 항목을 비롯한 기고자가 원고를 투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Vancouver 형식을 표준형식으로 제정하여 모든 회원기관의 학술지에 권고하고 있다.

Vancouver 형식은 1979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로 현재 1997년에 출판된 제5판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으며, 그 중에서 1991년에 출판된 제 4판과 1997년에 출판된 제5판을 가장 널리 채용하

는 표준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106종의 국내 의학 잡지 가운데 Vancouver 1997(제5판)을 채택하고 있는 잡지가 49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Vancouver 1991(제4판)이 8종, Vancouver 기타 판이 2종, Harvard 형식이 1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잡지가 채용하고 있는 표준형식을 표기하지 않은 잡지가 무려 46종으로 매우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고문헌기재형식의 표준화에 아직까지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KoreaMed에 수록된 잡지와 수록되지 않은 잡지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KoreaMed의 수록된 잡지 79종 가운데 48종이 표준형식을 표기하고 있었으며, KoreaMed에 수록되지 않은 잡지는 전체 27종 가운데 12종만이 표준형식을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고문헌 기재형식 표준에 있어 상대적인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이 표기하고 있고 채용하고 있는 표준형식인 Vancouver 1997은 다양한 의학 잡지(주로 3종의 의학잡지 : 1) *JAMA 1997;277:927-34*, 2) *N Engl J Med 1997;336:309-15*, 3) *Ann Internal Med 1997;126:36-47*.)에 의하여 표준형식이 기술되어 있다. 이들 잡지에서 기술하고 있는 표준형식들을 국내 의학 잡지들의 참고문헌 기재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고문헌 투고규정의 표준화 - 참고문헌기재형식

투고 형식	KoreaMed					non-KoreaMed				
	vancouver 1997	vancouver 1991	vancouver 기타	Harvard style	표기 없음	vancouver 1997	vancouver 1991	vancouver 기타	Harvard style	표기 없음
저널 수	39	6	2	1	31	10	2	0	0	15

- *JAMA 1997;277:927-34*.

- *N Engl J Med 1997;336:309-15*.

- *Ann Internal Med 1997;126:36-47*.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나. 최신성

투고규정의 최신성을 살펴보고 갱신주기를 간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투고규정이 갱신된 연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개정된지 1-2년된 잡지가 35종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개정된지 3-4년된 잡지가 25종으로 나타났고, 2004년 올해 개정된 규정도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 개정된 잡지가 전체 조사대상 잡지 106종 가운데 69종으로 나타나 과반이 훨씬 넘는 잡지의 투고규정은 비교적 최신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와 반대로 Vancouver 1997(제5판)이 나오기 이전에 개정된 규정을 가지

고 있는 잡지도 6종으로 나타나 시급한 투고규정의 갱신이 요구되고 있다. 대체로 KoreaMed에 수록된 잡지 중 갱신연도를 알 수 없는 11종을 제외한 68종 가운데 투고규정이 최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2000년 이후 개정된 잡지는 47종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KoreaMed에 수록되지 않는 잡지 가운데 갱신연도를 알 수 없는 6종을 제외한 21종에서 2000년 이후에 투고규정이 개정된 잡지는 12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표 3〉 투고규정 최근 갱신연도

개정연도	KoreaMed						non-KoreaMed					
	97 이전	98- 99	00- 01	02- 03	04- 알수 없음	알수 없음	97 이전	98- 99	00- 01	02- 03	04- 알수 없음	알수 없음
저널수	2	9	18	31	8	11	4	5	7	4	1	6

다. 참고문헌 기술언어

참고문헌의 투고규정에서 참고문헌을 기술하는 언어를 분석해보면, 영어로만 오로지 기재하도록 하는 잡지는 44종으로 나타났고,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기재하도록 하는 잡지는 60종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고문헌 기재언어에 대한 아무런 지시가 없는 잡지도 2종이나 되었다. 참고문헌의 기재 언어는 국내잡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Medline과 같은 외국의 저명한 색인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기 위한 조치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KoreaMed에 수록된 잡지 중에서 33종이 영어로만 참고문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KoreaMed에 수록되지 않는 잡지 중에서는 11종만이 영어로 참고문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국내 의학 잡지의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외국의 저명한 2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기 위해서는 향후에 개정될 국내 의학 잡지의 참고문헌 기재언어의 표시에서 영어로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국내 의학 잡지 참고문헌 기술 언어

기재 언어	KoreaMed			non-KoreanMed		
	English only	Korean English	지시 없음	English only	Korean English	지시 없음
저널수	33	45	1	11	15	1

라. 참고문헌 개수 제한

국내 의학 학술지는 그 투고규정에서 참고문헌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학술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수는 41종으로 나타났고, 참고문헌을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 학술지의 수는 65종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의 개수를 제한하는 41종 가운데 참고문헌을 40개로 제한하는 잡지가 21종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30개로 제한하는 잡지가 12종, 50개로 제한하는 잡지가 5종, 20개로 제한하는 잡지가 3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고문헌이라는 것은 본문의 내용을 기술할 때 참고하거나 인용한 저작들로서 이들 문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참고문헌을 기재할 때 그 중요성에 따라서 제한된 개수대로 참고문헌을 선정하여 기재한다면,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애매하며, 저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문 중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문헌 등은 모두 참고문헌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참고문헌의 갯수 제한

참고문헌	20	30	40	50	제한 없음
저널수	3	12	21	5	65

마. 공저자의 제한

대부분의 의학 잡지들은 공저자의 생략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잡지의 수는 조사대상 106종 가운데 94종에 이르고 있다. 이 94종의 잡지 가운데 Vancouver 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6명까지만 기술하도록 하는 잡지는 44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3명까지(7명 이상의 공저자의 경우) 기재하도록 하는 잡지는 23종, 모든 공저자를 전부표기 하도록 하는 잡지는 20종, 3명까지(4명 이상의 공저자일 경우) 3종, 3명까지(5명 이상의 공저자일 경우) 2종, 5명까지(6명 이상의 공저자일 경우) 1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저자의 생략표시는 저자명이 영문일 경우에는 저자명 표기 다음에 “et al” 표기를 하고, 저자명이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자명 다음에 “등”으로 표기해 준다.

공저자를 생략한다는 것은 공저자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잡지의 참고문헌 투고규정을 표준화된 형식인 Vancouver 1997 형식을 따르거나 한다면, 모든 잡지는 6명까지(7인 이상의 공저자일 경우)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Vancouver 1997 형식을 전반적으로 따르더라도 모든 공저자는 전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표 6〉 공저자의 생략

저자표기 방식	3명까지 (7명이상)	6명까지 (7명이상)	3명까지 (4명이상)	3명까지 (5명이상)	3명까지 (6명이상)	5명까지 (6명이상)	전부 표기	규정 없음
저널수	23	44	3	2	1	1	20	12

국문: 등, 영문 : et al

바. 학술잡지명 약기표기에 대한 참조지시

학술잡지명 표기에 대한 참조를 지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의학 학술지는 대체로 참고문헌에 학술잡지명을 기재할 때 약기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이 때 학술잡지명의 약기표기를 참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지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참조 정보원은 “Index Medicus”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 학술잡지 106종 가운데 학술잡지명 표기에 대한 참조 규정이 없는 19종을 제외한 87종에서 약 85종이 학술잡지명의 약기를 표기할 때 참조하는 정보원으로 “Index Medicus”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술지는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소수의 참조 정보원으로 “BIOSIS List”나 “PubMed”를 지시하고 있는 잡지도 각각 1종씩으로 조사되었다.

〈표 7〉 학술잡지명 약기표기에 대한 참조지시

약어집	Index Medicus	BIOSIS list	PubMed	규정언급없음
저널수	85	1	1	19

사. 참고문헌의 배열순서

참고문헌의 배열순서는 일반적으로 저자명의 가나다순 또는 저자명의 알파벳순, 출판연도순, 본문의 인용순서 등 이들 3가지가 주로 참고문헌의 배열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의학 잡지 106종 가운데 참고문헌 배열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는 14종을 제외한 92종에서 본문중의 인용순서와 동일하게 참고문헌을 배열하도록 규정된 의학 잡지가 69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저자명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학 잡지가 20종이며, 출판연도 순으로 참고문헌을 배열하고 있는 의학 잡지 3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Vancouver 1997(제5판)에는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된 순서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Harvard 형식은 저자명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Vancouver 형식에 따라 참고문헌을 기재하는 국내 의학 잡지들은 이들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참고문헌 배열 순서

참고문헌 배열 순서	저자명의 가나다순 알파벳순	출판연도순	본문의 인용순서
국문, 영문혼용	5	2	48
영문전용	15	1	21

〈규정없음 : 14종 제외〉

- Vancouver 형식 : 본문의 인용기재 순서대로 배열
- Harvard 양식(APA 양식) : 저자명의 가나다, 알파벳순의 배열

아. 참고문헌의 표기 사례

참고문헌 기술규정속에 참고문헌의 실제 표기 사례로 들고 있는 문헌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이들 표기 사례로 적용된 문헌들은 저자들이 참고문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데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모든 학술지들은 참고문헌의 기재형식을 설명할 때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표기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 현재 Vancouver 형식에서는 인용될 수 있는 문헌의 종류를 크게 학술잡지, 단행본, 단행본의 장, 학술대회발표자료, 기술보고서, 학위논문, 특허, 신문기사, 시청각자료, 법률자료, 지도, 성경, 사전 및 유사참고문헌, 고전물, 인쇄중자료(미출판자료), 전자매체(학술잡지), 전자매체(단행본), 컴퓨터파일, 인터넷 인용, 문헌중에 기재된 문헌의 재인용,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그 표기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Vancouver 형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헌의 표기 사례를 국내 의학 학술지들이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저자들에게 참고문헌 기재의 일관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달리 말하면, 예시로 제공된 문헌이외의 문헌을 표준적인 형식에 따라 저자가 참고문헌을 기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인이 통일된 참고문헌의 기재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 106종의 국내 의학 잡지 가운데서 학술잡지를 기재 사례로 들고 있는 잡지는 106종으로 1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단행본은 104종으로 98%, 단행본의 장은 61종으로 약 5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문헌은 참고문헌의 기재 사례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문헌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술대회 발표 자료는 26종 25%, 학위논문이 21종 20%, 미출판 자료가 20종 19%, 전자매체(학술잡지)가 16종 15%, 신문기사와 문헌 중에 기재된 문헌의 재인용이 12종 11%, 전자매체(단행본) 11종(10%)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보고서나 특허, 시청각자료, 법률자료, 지도, 성경, 인터넷문서 등은 5종 이하로 나타나 거의 모든 학술지에서 표기 사례를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문헌에 대한 참고문헌의 기재가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표 9> 참고문헌의 표기 양식

	KoreaMed(79종)	non-KoreaMed(27종)	전 체(106종)
학술잡지	79(100%)	27(100%)	106(100%)
단행본	77(97%)	27(100%)	104(98%)
단행본의 장(단원)	48(61%)	13(48%)	61(58%)
학술대회발표자료(회의자료)	20(25%)	6(22%)	26(25%)
기술보고서(연구보고서)	3(4%)	2(7%)	5(5%)
학위논문	14(18%)	7(26%)	21(20%)
특허	1(2%)	2(7%)	3(3%)

신문기사	8(10%)	4(15%)	12(11%)
시청각자료	2(3%)	1(4%)	3(3%)
법률자료	1(2%)	1(4%)	2(2%)
지도	1(2%)	1(4%)	2(2%)
성경	1(2%)	1(4%)	2(2%)
사전 및 유사참고문헌	3(4%)	3(11%)	6(6%)
고전물	2(3%)	1(4%)	3(3%)
인쇄중자료(미출판자료)	13(16%)	7(26%)	20(19%)
전자매체(학술잡지)	11(14%)	5(19%)	16(15%)
전자매체(단행본)	8(10%)	3(11%)	11(10%)
컴퓨터파일	7(9%)	2(7%)	9(9%)
인터넷인용	5(6%)	-	5(5%)
문헌중에 기재된 문헌 재인용	12(15%)	-	12(11%)
기타(뉴스레터, 표, 그림)	6(8%)	-	6(6%)

3. 참고문헌 기술항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의 기술형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생의학 잡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제 참고문헌 표기 형식에 대한 사례가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참고문헌은 학술잡지, 단행본, 단행본의 장, 학술대회 회보, 학위논문, 미출판자료, 전자매체(학술잡지) 등이다.

가. 학술잡지

“저자명. 논문기사명. 학술잡지명 발행연도 발행월;권(호):면수.”

여기에서 한 권(券) 안에서 페이지를 연속적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발행월과 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즉, “저자. 논문기사명. 학술잡지명 발행연도;권:면수.” 이와 같이 기재될 수 있다.

(1) 저자명 표기

저자명의 표기는 영문일 경우에는 성을 먼저 기술한 다음, 이름은 약기로 하여 마침표(.)를 찍어 구분하고 있다. 국문일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먼저 기재하고 이름은 약기 없이 바로 뒤에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보통 6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기재하고,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까지 기재한 후, '등'이나 'et al'로 약기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저자와 저자사이에 (,)를 찍어 구분한다.

(2) 논문 기사명 표기

논문기사명은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기술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소문자로 기술하고 있다. 제목의 기술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어 구분한다.

(3) 학술잡지명 표기

학술잡지명은 영문일 경우에는 약기로 기재하며, 잡지명의 약기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Index Medicus'에 따르고 있다. 잡지명이 한 단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약기가 없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4) 발행연도 및 발행월 표기

발행연도는 학술잡지가 출판된 해당연도를 말하며, 서기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례 : 1994(0), 1996(0), 94(X), 96(X)]

발행월은 영문일 경우에 보통 해당 월 알파벳 3자리까지 축약하여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 권이 연속적으로 페이지가 기술되어 있는 잡지일 경우에는 발행 월을 생략할 수 있다. 발행년이나 발행월의 표기가 끝나면 세미콜론(;)을 찍어 다음요소와 구분한다.

(5) 권, 호의 표기

권은 통상적으로 괄호를 하지 않고 기술하고 있으며, 반대로 호는 통상 괄호안에 넣어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호는 발행월과 마찬가지로 한 권이 연속적인 페이지로 표기하고 있는 잡지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권(호)의 기술이 종료되면 콜론(:)을 찍어 다음 요소와 구분하고 있다.

(6) 면수(페이지수)

면수는 학술잡지 기사가 수록된 페이지를 기술하는 것으로서,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를 기술할 때는 첫 페이지와 공통적인 페이지 단위는 제외하고 다른 부분만 기재한다. [사례, 195-7, 183-94, 1006-32, 32-45].

면수의 기재가 종료되면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 참고문헌 기술이 끝났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Vancouver 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형식을 국내 의학 학술지에서 채택하고 있는 참고문헌 투고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고문헌 투고규정내의 기술사례에 나타난 학술잡지의 기술요소를 분석한 결과 Vancouver 형식에 따르지 않는 잡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상이를 보이는 요소는 면수표기로서 48종의 잡지가 해당하였으며, 분석대상 전체 106종의 학술잡지에서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이들 학술지들은 페이지를 나타

내는 “pp., p.”등을 사용하여 면수를 표기하거나, 공통되는 페이지를 제외(예, 178-87, 881-8)하지 않고 페이지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구두점의 표기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는 37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잡지의 편집을 책임지는 편집자나 학술잡지를 기술하는 저자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틀리기 아주 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면, “저자명. 논문기사명”을 “저자명: 논문기사명”으로 표기한다든지, “권(호):면수”를 “권(호), 면수”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저자명을 “Kim DH”을 “Kim, D.H.”으로 표기하는 저자명 표기오류나, 권(호)표기에서 “VOL. NO.”를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기술순서를 무시하고 기술하는 잡지가 30종, 28%로 나타나 적지 않은 학술지들이 기재 순서를 다르게 하고 있었으며, 학술지명도 이탤릭체로 기술하거나 잡지의 약기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표 10〉 학술잡지 기술요소 분석

〈단위 : 저널수, 전체잡지:106종〉

학술잡지 기술요소	KoreaMed	non-KoreaMed	합계
저자명 표기 상이	5	4	9(8%)
논문기사명 표기 상이	8	3	11(10%)
학술잡지명 표기 상이	17	3	20(19%)
발행연도/월 표기 상이	-	1	1(1%)
권(호) 표기 상이	12	4	16(15%)
면수 표기 상이	32	16	48(45%)
구두점표기 상이	27	10	37(35%)
순서오류	19	11	30(28%)

나. 단행본

“저자.서명.(판사항.)출판지:출판사:출판연도.”

이와 같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단행본의 기술형식은 판사항이 포함될 때는 서명사항과 출판사항 사이에 판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이때 영문으로 판사항을 기재할 때는 판을 나타내는 ed.를 붙여 지시한다. 저자명의 표기는 성을 먼저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약기하여 기재한다.

2인 이상 저자일 경우에는 저자와 저자는 쉼표(,)로 구분한다. 서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하며 그 나머지 단어의 첫머리는 특정문자(고유명사 등)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기재한다. 위의 〈표 11〉은 참고문헌 투고규정내의 기술사례에 나타난 단행본의 기술요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Vancouver 형식에 따르지 않는 잡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Vancouver 형식을 따르지 않는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요소는 구두점이다. 구두점이 표준형식과 다르게 채용하는 잡지는 63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ancouver 형식에서는

채용하지 않는 요소인 인용페이지를 기술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62종, 60%를 차지하고 있어 적지 않는 잡지가 이 요소를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잡지가 단행본의 참고문헌 기재 형식을 제시할 때 기본적으로는 Vancouver 형식을 따르되, 인용페이지를 기술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요소를 기재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상이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기재양식을 주어야 한다. 즉, “pp. 나 p.”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며, 아울러 첫 페이지와 공통된 페이지를 제외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기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다. 요소의 기재순서를 다르게 하는 순서오류도 21종(20%)나 나타나 구두점과 함께 민감하게 신경쓰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판사항의 기재시 “ed 3”, “3rd Ed” 등의 기재 오류와 판사항을 생략하는 오류도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단행본의 기재시 “3판”으로 기재된 것과 “제3판”으로 기재된 것이 혼재되어 있었고, 서명을 이탤릭체로 기재한다든지, 저자명 표기시 “역할기호나 editors”를 첨부하거나, 진한활자체로 기재하거나, “Kim D. J.” 등의 표기에서 상이성을 보여주었다.

〈표 11〉 단행본 기술요소 분석

(단위 : 저널수, 전체잡지:104종)

단행본 기술요소	KoreaMed	non-KoreaMed	합 계
저자명 표기 상이	5	3	8(8%)
서명 표기 상이	9	2	11(11%)
판사항 표기 상이	9	2	11(11%)
출판사항 표기 상이	4	-	4(4%)
구두점 표기 상이	50	13	63(61%)
순서오류	15	6	21(20%)
인용페이지포함	48	14	62(60%)

다. 단행본의 장

“저자명.장제목.단행본 편집저자명.서명.판사항.출판지:출판사:출판년.면수”

단행본의 장을 기술하고자 할 때 편집저자명 앞에 “In : ”을 선행하여 기재하며, 모두 기재한 후에는 “editors”를 삽입하여 편집자임을 밝히고 있다. 면수는 이 장이 나타나 있는 첫 페이지와 마지막페이지를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 12〉은 참고문헌 투고규정내의 기술사례에 나타난 단행본 장(CHAPTER)의 기술요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많은 오류 보이고 있는 요소는 면수의 표기이다. 전체의 57%, 35종의 학술잡지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pp.나 p.”을 사용하여 페이지를 기술한 다든지, 아니면 페이지요소의 기술을 생략하는 오류이다. 이 밖에도 첫 페이지와 공통된 페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기재하는 형식과 달리 마지막페이지 기술시 공통된 페이지를 포함하고 기재하

는 것이다.

〈표 12〉 단행본의 장 기술요소 분석

〈단위 : 저널수, 전체잡지:61종〉

단행본의 장 기술요소	KoreaMed	non-KoreaMed	합 계
저자명 표기 상이	3	-	3(5%)
장제목 표기 상이	4	-	4(7%)
편집저자명 표기 상이	29	2	31(51%)
서명사항 표기 상이	7	-	7(11%)
판사항 표기 상이	3	-	3(5%)
출판사항 표기 상이	3	-	3(5%)
면수 표기 상이	30	5	35(57%)
구두점표기 상이	23	2	25(41%)
순서오류	11	2	13(21%)

그 다음으로 많은 오류를 보이는 요소는 편집저자명의 기술이다. 이의 오류는 전체의 31종(51%)를 차지하고 있으며, “editors를 eds., ed., (eds.), editor”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edited by”나 “ed by”로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editors”를 아예 생략하는 잡지도 있었다. 또한 편집저자명 앞에 기술하는 “In:”를 생략하거나, “in:”, “In”으로 기재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다른 기술요소와 마찬가지로 구두점오류와 순서를 바꾸어 기재하는 경우도 각각 41%,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서명이나 장제목에 “In:”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판사항 표기에도 “ed 3”, “revised ed.”로 다양한 오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라. 학술대회 회보(Conference Proceedings)

학술대회 회보는 회의록, 학술대회논문집, 발표논문집 등 국내외적인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말한다. 이와 같은 논문들을 인용하고자 할 때 Vancouver 형식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Vancouver 형식에서는 학술대회 회보를 인용문헌으로 기술하고자 할 때 “**발표자명. 발표논문명. 학술대회명; 개최연월일; 개최장소. 회의록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여기에서 발표논문이 게재된 회의록의 페이지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회의록의 출판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 학술대회 회보일 경우에는 외국처럼 나중에 별도로 회의록이 출판되어 지는 경우보다는 학술대회 이전 또는 학술대회에 맞추어 회의록이 발간되기 때문에 별도의 출판정보는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학술대회논문집이나 회보를 인용하고자 할 때는 만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인용할 수 없다는 인용규정을 가지고 있는 학술잡지도 있다. 이는 아마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이나 회보등이 다소 다른 정보원에 비하여 최신성

을 요구하거나 정보의 수명이 짧은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3〉 학술대회 회보의 기술요소 분석

〈단위 : 저널수, 전체잡지: 26종〉

학술대회 회보 기술요소	합 계
발표자명 표기상이	4(15%)
발표논문명 표기상이	-
학술대회명 표기상이	2(8%)
개최연월일 표기상이	6(23%)
개최장소 표기상이	6(23%)
회의록출판정보 표기상이	7(27%)
구두점 표기상이	6(23%)
순서오류	6(23%)

위의 〈표 13〉은 참고문헌 투고규정내의 기술사례에 나타난 학술대회논문집 또는 회보(proceeding)의 기술요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요소는 회의록출판정보가 없는 경우이다. 즉 회의 후 출판된 간행물이나 이 논문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원을 Vancouver 형식에서는 밝혀두는 것을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의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개최장소, 개최연월일은 아예 표기자체를 하지 않은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구두점과 순서오류는 다른 정보원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당히 틀리기 쉬운 요소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 학위논문

Vancouver 형식에서 학위논문의 참고문헌 기재는 “**저자명. 학위논문명[학위명표시]. 출판지(지역): 대학명; 출판연도.**”의 형식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위명 표시는 Thesis(석사), dissertation(박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학명에서 대학은 [Univ.]로 약기하도록 되어 있다. 출판지(지역)에서 지역은 그 대학이 속한 지역명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주명칭을 약기하여 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 14〉은 참고문헌 투고규정내의 기술사례에 나타난 학위논문(dissertation)의 기술요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요소는 약 전체 21종 가운데 12종(57%)로 나타나는 학위명칭의 표기가 상이한 점이다. 즉 학위논문을 참고문헌으로 기재할 시에 학위명칭 [dissertation]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생략하거나, “Ph.D. thesis”로 표기하거나,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 -“(dissertation)”-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구두점의 표기가 상이한 것이다. 구두점의 표기 오류는 모든 정보원의 기술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로 보인다. 이 외에도

출판지역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명의 표기도 약기를 하지 않거나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예, 연세대, 연대, 연세대학교). 또한 학위논문명을 이탤릭체로 하거나 진하게 표시하는 등의 다른 점도 발견되었다.

〈표 14〉 학위논문의 기술요소 분석

〈단위 : 저널수, 전체잡지: 21종〉

학위논문의 기술요소	합 계
저자명 표기상이	-
학위 논문명 표기상이	1(5%)
학위명 표기상이	12(57%)
출판지(지역) 표기상이	3(14%)
대학명 표기상이	4(19%)
출판연도 표기상이	4(19%)
구두집 표기상이	11(52%)
순서오류	4(11%)

바. 미출판자료(인쇄중인 자료)

미출판자료나 인쇄중인 자료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Vancouver 형식에서는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In press 출판연도.”에 따르도록 한다. 이 형식에서는 학술잡지의 경우를 한정하여 들고 있으며, 인쇄중인 다른 정보원에 대한 참조형식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인쇄중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In press”는 “forthcoming”이란 용어로 그 사용을 대치하고 있다. 한글정보원인 경우에는 “출판중” 또는 “인쇄중”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의 〈표 15〉는 참고문헌 투고규정내의 기술사례에 나타난 미출판자료나 인쇄중인 자료의 기술요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5〉 미출판자료의 기술요소 분석

〈단위 : 저널수, 전체잡지:20종〉

미출판자료의 기술요소	합 계
저자명 표기상이	1(5%)
논문명 표기상이	1(5%)
잡지명 표기상이	1(5%)
In press 표기상이	4(20%)
출판연도 표기상이	5(25%)
구두집 표기상이	5(25%)
순서오류	4(20%)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요소는 구두점과 출판연도로서 각각 전체의 2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서 출판(예정)연도는 연도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In press(인쇄중)요소가 없거나 “in”인 경우, [in press]인 경우 등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잡지명과 논문명은 이탤릭체로 된 경우가 있으며, 저자명은 Kim D.D. 등으로 표기한 오류가 있었다.

사. 전자매체(학술잡지) - Journal articles in electronic format

전자매체의 인용과 활용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들 정보원에 대한 참고문헌 기술형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Vancouver 1997에서는 전자매체(학술잡지)에 대한 참고문헌의 기재는 “**저자명. 전자매체기사명. 잡지명[입수매체] 출판연월 [인용연월일]; 권(호):[24 screens]. Available from : URL :URL주소**”에 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입수경로는 입수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CD-ROM, Database, Online 등 정보를 입수하는 매체의 형태를 의미한다. 인용연월일은 인용한 연도, 월, 일자를 기재하되, 항상 “cited”를 선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수할 수 있는 URL주소는 “Available from : URL:”을 선행하고 난 후에 입수할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표 16〉 전자매체(학술잡지)의 기술요소 분석

(단위 : 저널수, 전체잡지:16종)

전자매체(학술잡지) 기술요소	합 계
잡지명(입수매체)표기상이	-
출판연월일(인용연월일) 표기상이	2(13%)
권(호) 표기상이	2(13%)
Available from : URL: 표기상이	2(13%)
구두점 표기상이	5(31%)
순서오류	3(19%)
기타	2(13%)

위의 〈표 16〉은 참고문헌 투고규정내의 기술사례에 나타난 전자매체(학술잡지)의 기술요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구두점의 표기가 상이한 잡지가 5종(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기재하는 잡지가 3종(19%)로 나타났다. 또한 출판연월일(인용연월일)을 표기할 때 “Cited” 대신에 “accessed”나 “retrieved”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Available from: URL:”도 구두점(:)를 빼거나, from 대신에 at를 사용하는 경우와 “Available”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로는 접속일자를 별도로 표기하는 경우인데, 즉 [accessed Jun. 24, 2003]의 형식으로 맨 마지막에 표기하는 잡지도 발견되었다.

IV. 결과 및 제언

이상과 같이 국내 의학 학술지의 참고문헌 기재형식의 상이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의학 학술지의 참고문헌 투고규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국내 의학학술잡지 106종 가운데 표준형식을 채택하는 잡지는 60종(57%), 채택하지 않는 학술잡지는 46종(4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택하지 않는 학술잡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도 최신의 표준형식인 Vancouver 1997을 채택하지 않는 학술잡지가 11종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잡지는 최신의 표준형식의 도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투고규정의 최신성 조사에서 개정된지 1-2년된 잡지가 35종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개정된지 3-4년된 잡지가 25종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 올해 개정된 규정도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 개정된 잡지가 전체 조사대상 잡지 106종 가운데 69종으로 나타나 과반이 훨씬 넘는 잡지의 투고규정은 비교적 최신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와 반대로 Vancouver 1997(제5판)이 나오기 이전에 개정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잡지도 6종으로 나타나 시급한 투고규정의 갱신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참고문헌을 기재하는 언어분석에서 영어만 오로지 기재하도록 하는 잡지는 44종으로 나타났고,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기재하도록 하는 잡지는 60종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고문헌 기재언어에 대한 아무런 지시가 없는 잡지도 2종이나 되었다. 따라서 참고문헌을 기술하는 언어의 통일도 표준화를 달성하고, 참고문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참고문헌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잡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잡지의 수는 41종으로 나타났고, 참고문헌을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 잡지의 수는 65종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의 개수를 제외하는 41종 가운데 참고문헌을 40개로 제한하는 잡지가 21종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30개로 제한하는 잡지가 12종, 50개로 제한하는 잡지가 5종, 20개로 제한하는 잡지가 3종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부분의 의학 잡지들은 공저자의 생략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잡지의 수는 조사대상 106종 가운데 94종에 이르고 있다. 이 94종의 잡지 가운데 Vancouver 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6명까지만 기술하도록 하는 잡지는 44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3명까지(7명이상의 공저자의 경우) 기재하도록 하는 잡지는 23종, 모든 공저자를 전부표기 하도록 하는 잡지는 20종, 3명까지(4명이상의 공저자일 경우) 3종, 3명까지(5명이상의 공저자일 경우) 2종, 5명까지(6명이상의 공저자일 경우) 1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술잡지명 표기에 대한 참조를 지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의학 잡지는 대체로 참고문헌에 학술잡지명을 기재할 때 약기하여 표기하고 있다. 이 때 학술잡지명의 약기표기를 참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지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참조 정보원은 “Index Medicus”이다. 조사대상 학술잡지 106종 가운데 학술잡지 표기에 대한 참조 규정이 없는 19종을 제외한 87종에서 약 85종이 학술잡지의 약기를 표기할 때 참조하는 정보원으로 “Index Medicus”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술잡지는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소수의 참조 정보원으로 “BIOSIS List”나 “PubMed”를 지시하고 있는 잡지도 각각 1종씩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참고문헌의 배열순서는 일반적으로 저자명의 가나다순 또는 저자명의 알파벳순, 출판연도순, 본문의 인용순서 등 이들 3가지가 주로 참고문헌의 배열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의학 잡지 106종 가운데 참고문헌 배열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는 14종을 제외한 92종에서 본문중의 인용순서와 동일하게 참고문헌을 배열하도록 규정된 의학 잡지가 69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저자명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학 잡지가 20종이며, 출판연도순으로 참고문헌을 배열하고 있는 의학 잡지 3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덟째, 참고문헌의 기술사례로 어떤 정보원을 대상으로 들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106종의 국내 의학 잡지 가운데서 학술잡지를 기재 사례로 들고 있는 잡지는 106종으로 1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단행본은 104종으로 98%, 단행본의 장은 61종으로 약 5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문헌은 참고문헌의 기재 사례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문헌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술대회 발표 자료는 26종 25%, 학위논문이 21종 20%, 미출판자료가 20종 19%, 전자매체(학술잡지)가 16종 15%, 신문기사와 문헌중에 기재된 문헌의 재인용이 12종 11%, 전자매체(단행본) 11종(10%)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보고서나 특허, 시청각자료, 법률자료, 지도, 성경, 인터넷문서 등은 5종 이하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잡지에서 표기 예시를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문헌에 대한 참고문헌의 기재가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투고규정내의 기술사례에 나타난 각종 정보원에 대한 기술요소의 상이성을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상당한 학술지들이 표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규정으로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3.3의 참고문헌 기술형식 분석을 참조하면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의학 분야의 학술잡지의 참고문헌 기술을 표준화하여 참고문헌의 유통과 정보생산자와 이용자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학편집인협의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참고문헌 표준형식인 Vancouver 1997 형식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Vancouver 형식이 국외에서 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국내문헌이나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은 약간의 수정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또한 Vancouver 형식에서 지시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수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의학 잡지에서 채용하고 있는 참고문헌 기재형식을 Vancouver 형식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의학학술잡지의 참고문헌 기재형식을 표준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요구되는 규정이나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의학잡지들의 참고문헌 투고규정은 Vancouver 1997형식을 반드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한국의학학술잡지편집인 협의회에서도 이 형식을 국내 생의학 학술잡지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홍보와 권고를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국내 의학 학술잡지의 참고문헌 기술 형식의 표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의학잡지에서 채용하고 있는 표준형식은 갱신되기 이전의 형식을 채용하고 있는 잡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최근에 갱신된 표준형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최신의 표준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이 수정된 기술형식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으며, 학술잡지의 참고문헌 기재시 통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 셋째, 투고규정의 최신성:조사에서도 나왔듯이 투고규정이 2000년 이전에 개정된 잡지가 106종 가운데 40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잡지의 투고규정의 갱신이 시급히 요구된다. 넷째, 참고문헌을 기재하는 언어도 현재는 영어만 기재하는 잡지가 있는가 하면, 영어와 한글을 혼용하여 기재하는 잡지도 있다. 따라서 참고문헌을 기술하는 언어의 통일도 표준화를 달성하고, 참고문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글잡지에서는 영어와 한글을 혼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영문잡지인 경우에는 영어만을 전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의학 잡지의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외국의 저명한 2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향후에 개정될 국내 의학 잡지의 참고문헌 기재언어의 표시에서는 영어로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다섯째, 참고문헌의 개수의 제한을 사용하는 잡지가 상당하다. 그러나 실제로 인용된 참고문헌은 그 기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부 참고문헌으로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논문을 작성할 때 인용하거나 참고한 문헌이 참고문헌으로 기재되고 이들 참고문헌은 각종 정보원을 평가하는 도구이며,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여섯째, 대부분의 의학 잡지들은 공저자의 생략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Vancouver 1997에서도 6인까지의 공저자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학잡지의 참고문헌 기술규정에는 모든 공저자의 기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공저자를 생략하게 되면 참고문헌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생략된 공저자로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접근할 수 없으며, 인용문헌이 저자들의 정보생산성 평가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저자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일곱째,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학술잡지명 표기는 index medicus의 참조지시에 따라 학술잡지명을 기재해야 하며, 국문으로 되어 있는 학술잡지명은 약기하지 말고, 완전명을 기술해야 한다. 여덟째, 참고문헌의 배열순서는 저자의 가나다순, 또는 저자명의 일파벳순, 그리고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 등 이들 세 가지가 주로 참고문헌의 배열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Vancouver 1997에서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에 따라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문 영문 혼용으로 참고문헌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문과 국문이 혼용되어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나다순, 알파벳순으로 참고문헌을 배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되면, 본문중의 각주 앞에 참고문헌 번호[13]대신에 (White 2005) 등

과 같은 형식으로 기술해주면 된다. 아홉째, 투고규정안에 참고문헌의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기술 사례를 들고 있는 정보원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들 사례로 사용된 정보원은 구체적으로 저자들이 참고문헌을 기재하는데 적절히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모든 잡지들은 참고문헌의 기재형식을 설명할 때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헌의 표기 사례를 보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Vancouver 형식에서는 인용될 수 있는 문헌의 종류를 크게 학술잡지, 단행본, 단행본의 장, 학술대회발표자료, 기술보고서, 학위논문, 특허, 신문기사, 시청각자료, 법률자료, 지도, 성경, 사전 및 유사참고문헌, 고전물, 인쇄증자료(미출판자료), 전자매체(학술잡지), 전자매체(단행본), 컴퓨터파일, 인터넷 인용, 문헌중에 기재된 문헌의 재인용,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그 표기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잡지, 단행본, 단행본의 장(chapter)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보원에 대한 사례가 매우 빈약하며, 특히 기술보고서나 특허, 시청각자료, 법률자료, 지도, 성경, 인터넷문서 등은 5종 이하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잡지에서 표기 예시를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정보원에 대한 참고문헌의 기재가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되기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학 학술지는 투고규정에 참고문헌 기술 사례를 Vancouver 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정보원의 기술사례를 통일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열 번째, 참고문헌 기재시의 각종 기술요소의 오류나 오기 등은 참고문헌 기재의 표준형식을 면밀하게 참조하면 구두점이나 순서오류, 각종 요소기재의 오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채택하고 있는 표준화된 참고문헌의 기술형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저자가 기술한 참고문헌 규정을 출판 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투고규정이나 참고문헌기재형식에 따르지 않거나 성실하게 기술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한다는 학술잡지 편집인들의 자세와 직접적으로 참고문헌을 기술하는 저자나 정보생산자들의 참고문헌 기재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요구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